

##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 및 육성체계 조사

- 장재홍 연구위원(지역발전연구센터)
- 송하울 연구위원(지역발전연구센터)

### 1. 해외 출장 개요

- 출장자 : 장재홍, 송하울 연구위원
- 출장기간 : 2012년 9월 25일 ~ 9월 28일 (3박4일)
- 출장지역 및 면담자
  - 출장지역 : 일본(오사카, 고베, 교토)
  - 방문기관 및 면담자
    - 關西學院大學 : Yukio Miyata교수
    - 兵庫懸 地域再生課 : 부과장 名倉嗣朗, 관?西喜生
    - 近畿바이오산업진흥회의 : 전무이사 井上了, 사무국장 魚谷信夫 등
    - 京都府商工労働観光部 : 부과장 田中學, 부과장 山田圭則, 부주사 田村弘之 등
    - 關西廣域聯合 : 사무국장 中塚則男, 기획과장 龜澤博文, 주사 蟻芝潔
    - (주)口福 : 森滿建司대표

○ 출장목적

-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 및 육성체계에 대한 조사
-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체계, 협력의 주요 내용 등을 조사
- 특정 산업(바이오산업)의 육성시책 및 체계에 대한 사례조사, 혁신의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방안 조사
- 일본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적 육성체계에 대한 조사

○ 출장 일정

일자	주요 업무
9월 25일(화)	서울 출발 →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 도착 (주)구북 방문
9월 26일(수)	오사카 출발 → 고베 도착 효고현청 방문 간사이학원대학 방문 고베 출발 → 오사카 도착
9월 27일(목)	오사카 출발 → 교토 도착 교토부청 방문 교토 출발 → 오사카 도착 간사이광역연합 방문
9월 28일(금)	긴끼바이오산업진흥회의 방문 오사카 출발 → 서울 도착

2. 주요 조사 내용

(1) 일본 지방정부의 지역산업 육성 시책

□ 교토부의 기업입지 촉진정책

- 교토부는 “교토부 고용의 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업의 입지촉진에 관한 조례”를 제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업을 지원
- 교토부의 기업투자에 대한 주요 지원내역
  - 사업소설치촉진보조금의 경우 투하고정자산액의 10%를 지원하며 부내 상용고용보조금의 경우 8억엔 이내에서 지원
  - 물류관련 산업의 특정지역 입지, 영상데이터산업의 특정 입지 등의 경우 지원조건을 우대함으로써 특정지역에 산업집적을 촉진
  - 또한 보조금 대상 산업의 경우 교토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을 통해 1.2% 특별금리의 융자 지원
  - 부동산 취득세를 최대 50% 경감 등 세제 측면의 지원
- 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의 경우 지자체 자체 지원보다는 지역 내 소재한 관련 기관의 시책을 연계하는 데 주력
  - 「긴끼지역중소기업해외전개지원회의」가 설립되어 관계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중소기업을 지원
  - 주로 정보의 제공 및 상담, 마케팅 지원, 인재의 육성 및 확보, 국내외 금융 측면 지원, 무역투자 환경 개선 등의 활동

#### □ 효고현의 “지역재생대작전”

- 효고현은 지역의 활력이 상실되고 있는 ‘다자연지역’을 중심으로 지역 자주적이며 주체적으로 창조의 활성화, 농업진흥, 정주, 공간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“지역재생대작전”을 추진
  -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도시와 농촌간 교류의 촉진을 통한 농촌 지역 활성화
- 효고현 고유사업으로서 중앙정부의 관련시책을 활용하여 재원을 충당
- 세부 시책의 하나인 “소규모집락활성화대책”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고

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일정단위 규모의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간 교류를 통한 활성화 추진

- 단계 : 농촌지역 내 합의 형성 → 도시와 농촌간 교류내용 및 교류대상 합의 → 상호 교류활동의 시작 → 거점정비 및 본격적 교류사업 전개

- 주요 사업은 교류거점정비사업, 농촌체험형교류사업, 특산품등개발지원사업, 도시에의 판매지원사업 등(소규모집락원기작전)

○ 이외에도 지역진흥모델사업의 일환으로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 지원(최대 100만엔 지원), 동 계획의 실천과 관련하여 편의시설 등 설립 지원을 추진 중

□ 일본 지역산업의 육성은 중앙정부 주도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자체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분적인 육성책을 추진

○ 일본의 경우 지역산업의 육성을 비롯한 산업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시책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산업육성정책을 추진

○ 이는 지자체의 재정력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서 재정의 70% 가량을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어 지역산업 육성은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

○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최근 일본 지자체들은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활성화의 노력을 경주

- 효고현의 경우 “지역재생대작전”을 통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특히 세부 사업내용의 구성 측면에서 보면, 농촌의 각 단위별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

## (2) 바이오산업 육성 시책 및 체계

□ 긴끼지역 바이오산업 육성사업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

- 지역 바이오산업의 육성은 중앙정부의 경제산업성이 주도하고 있으며 경제산업성은 일본 광역단위로 설립한 경제산업국을 통해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
- 즉, 과거 지역산업 정책은 산업의 지방분산 및 거점개발에 초점을 두었으나, 그러한 전략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역의 혁신환경을 조성하여 내생적 지역산업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음.
- 이러한 산업클러스터 정책을 추진하면서 광역차원에서 집중 육성할 대상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이에 의거하여 긴끼지역의 경우 바이오산업을 선정되어 “간사이바이오클러스터프로젝트”에 따라 지원
- 경제산업국 중심으로 민간의 네트워크 지원기관 등과 연계하여 산학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혁신을 창출
  -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담당하는 지역의 중견·중소기업, 대학, 공공기관 등과 같은 구성주체를 발굴하고, 문제의식의 공유와 정보전달의 활성화를 통해 이들에 의한 산업클러스터의 기초가 되는 직접 대면형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
  - 생성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매칭이나 산학관 연계에 의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실행하도록 지원하여 참여기업에 의한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학 등의 지적 자산을 활용한 벤처비즈니스의 창출을 지원
  - 주된 지원시책으로는 네트워크 형성 및 고도화 지원, 연구개발 지원, 판로개척 지원, 자금조달 지원, 인력양성, 창업지원과의 연계, 지자체 시책의 상호 활용 등
- 긴끼바이오산업진흥회의는 긴끼지역 바이오 혁신주체간 연계 기능을 수행
  - 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서 바이오산업 산학관 연계를 강화하여 긴끼지역 바이오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

- 구성원은 비즈니스 82명, 학계 23명, 정부 33명, 해외 19명 등이며, 인적 네트워크는 교수, 과학자, 연구원 등 약 300명
- 특히 대학, 국공립시험연구기관의 바이오기술 Seeds와 산업계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산학관 연계사업을 적극 추진
- 긴끼경제산업국이 추진하고 있는 긴끼바이오관련산업프로젝트, 관서지역건강장수성장산업진흥·발전대책지원사업의 주요 전담기관으로서 긴끼지역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

### (3) 간사이광역연합의 실태 및 시사점

- 간사이광역연합은 간사이지역 지자체 2부 5현이 설립한 조합 형태의 자체 조직
- 중앙집권체제를 타파하고 지역 스스로가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·실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
- 교토부, 오오사카부, 시가현, 효고현, 와카야마현, 돗토리현, 도쿠시마현 등이 부현민, 부현회의의 논의를 거쳐 간사이광역연합을 설립
- 설립 목적은,
  - 지방분권 개혁의 돌파구 → 분권형 사회 실현
  - 간사이 광역행정의 전개 → 간사이 전체의 광역행정을 담당하는 책임주체 형성
  - 국가와 지방의 이중행정을 해소 → 국가의 지방지부국 사무를 지방정부가 수용
- 현행 지방자체법에 근거한 특별공공단체의 성격을 띠며 부현과의 병존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행정시스템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도주제와는 상이

□ 간사이광역연합의 광역사무 현황(2012년 기준)

○ 본부 : 기획조정, 조직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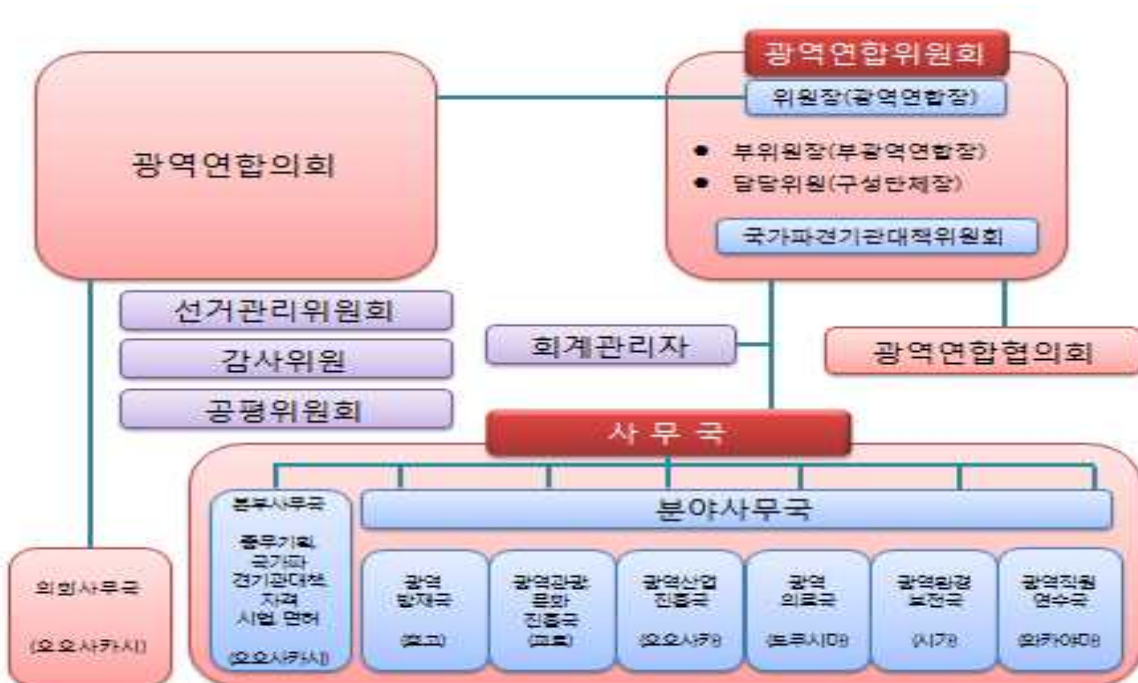
- 국가 파견기관 대책, 광역인프라 검토, 신에너지대책, 수도권능 백업 구조 구축, 광역연합사무국 운영, 광역연합협의회 개최, 광역연합의회 운영

○ 분야

- 광역방재, 광역관광·문화 진흥, 광역산업진흥, 광역의료, 광역환경보존, 자격시험·면허, 광역지원연구 등 7개 분야
- 광역방재 : 「간사이 방재·감재 플랜」의 충실·발전, 재해발생시 광역지원체제, 간사이광역지원훈련 실시

□ 간사이광역연합의 조직

○ 조직의 전체 구조



○ 광역연합의회

- 광역연합의 의결기관으로서 자빙자치법에 의한 의결, 선거, 감사, 감사의 청구, 의견서 제출 등 보통지방공공단체와 동등한 권한을 보유
- 의원(정원 27명)은 구성단체의 의회에서 각 의회의 의원으로부터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연 2회 정례회의, 연 2회 정도의 임시회의 개최

○ 광역연합위원회

- 광역연합의 운영상 중요사항에 관한 기본방침 및 처리방침을 광역연합장이 결정함에 있어서 구성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시키고, 구성단체장의 주도에 의한 각 부냐의 사무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각 부현지사가 사무분야별 담당위원으로서 집행 책임을 지는 간사이광역연합 독자적인 체제

○ 광역연합협의회

- 광역연합 운영에 있어서 주민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 청취를 위한 협의회를 운영
- 전문적 견지에서 조사,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중심으로 설치되는 전문부회의 설치 가능

□ 국가 파견기관의 사무·권한 이양 추진

- 국가의 파견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사무 중 본부가 실시해야 할 분야와 부현, 정령시가 국가로부터 사무이양을 받을 분야를 제외한 간사이 광역 과제에 해당되는 부현을 초월한 사무에 대해 국가로부터 이양을 받아 일원적으로 처리하여 국가와 지방의 이중행정을 해소
- 또한, 새롭게 처리하는 본격적인 사무로서 국가로부터 권한, 재원을 이



양받은 것에 의한 광역교통, 물류기반정비의 사무를 실시

○ 향후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사무

- 7개 분야(광역방재, 광역관광·문화, 광역산업진흥, 광역의료, 광역환경보존, 자격시험·면허, 광역직원연구) 및 교통·물류기반정비, 행정위원회 사무 등을 설정

□ 지방의 자발적 광역연합이라는 점에서 특징

- 간사이광역연합은 간사이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특별공공단체로서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방의 자발적 조직이라는 점이 특징
- 간사이광역연합은 집행기능을 광역적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시책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체제
- 또한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집행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지방분권의 확대를 도모
  - 간사이광역연합은 중앙정부의 파견기관인 긴끼경제산업국, 긴끼지방정비국, 긴끼지방환경사무소의 이관을 정부에 요청 중
-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방 주도 광역연합의 초기 단계로서 아직은 연간 예산이 6억 5,447만엔(2012년도 기준)에 불과

□ 우리나라 광역발전위원회 체제와 상이

- 우리나라 광역발전위원회는 5+2광역경제권 단위로 추진되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에 의해 설립
  - 단순히 몇 개의 행정단위를 묶는 개념이 아니라, 경제·사회·문화·

정치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면서 하나의 자립적 경제단 위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규모의 경제 및 네트워크 경제를 이루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.

○ 그러나 우리나라 광역발전위원회는 사실상 중앙정부 주도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서 지방의 자발성이 크지 않은 문제점

-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(광역) 주도의 사업추진에 한계를 노정

○ 간사이광역연합은 지방 주도의 기획 및 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광역위는 중앙의 5+2 광역권 사업에 한정하여 조정, 관리·평가 등에 부분적으로 관여

- 국가균형발전특별법(제28조 2항)에서는 광역위원회의 기능을 광역계획 및 광역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, 광역경제권 내 시·도 간 협력사업의 발굴에 관한 사항, 광역경제권 내 시·도 간 연계·협력사업에 대한 재원의 분담에 관한 사항, 해당 광역경제권 사업의 관리·평가에 관한 사항, 그 밖에 광역경제권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한정

- 이에 따라 광역적 사업의 집행을 추진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